

▶ 매일 INDEX



3면

정부,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58조 투자

2020년 7월 16일 목요일 (음 5월 26일) 제2579호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호자천변 2길 6번지

대표전화(063)288-9700



전북의 혁신성장을 위한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니포럼 조직위원회 별대식이 15일 국회 본관 별실에서 송하진 도지사, 김시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 김승수 전주시장, 박정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조경식 한국청년스타트업 협회장 등 참석인들이 성공결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지역 혁신성장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전북도 ‘지니포럼’ 조직위 출범… 8월 첫 행사
국제금융컨퍼런스에 한류문화 등 신산업 연계
송하진 지사 공동 조직위원장… 성공개최 다짐

급변하는 세계 경제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는 ‘지니포럼’이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전북도는 15일 국회 본관에서 ‘지니포럼 조직위원회별대식’을 열고 오는 8월 31일에 개최할 제1회 지니포럼의 성공개최를 다짐했다.

지니포럼은 전북도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체결한 국가균형발전 및 혁신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의 하나로 마련됐다.

전북에서 개최하는 국제금융컨퍼런스에 일자리, 한류문화 등 경제 신산업 분야를 연계해 확대 추진하는 글로벌 경제포럼이다.

이날 별대식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시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니포럼 공동 조직위원회장을 맡기로 했으며 김승수 전주시장과 조경식 한국청년스타트업 협회장 등이 조직 위원으로 이름을 옮겼다.

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김성주 국회의원과 금융기관장, 분야별 협력기 관원 등 국내외 저명인사가 상생협력

단으로 참여, 전북의 혁신성장을 위한 글로벌네트워크 구축 의지를 다졌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지니포럼은 그간의 행사들과 달리 글로벌 금융산업, 디지털 기술, 지역 상생일자리, 한류문화 등 전 산업 분야의 트렌드를 공유하고 미래 방향의 담론을 형성하는 소통의 장을 만든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번 행사는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전주한우마을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니포럼은 올해로 3회를 맞는 전북 국제금융컨퍼런스를 메인행사로 두고 기후환경 기술 세미나, 4차산업 스타트업 피칭, 상생일자리 엑스포, 지역혁신가 대회, K-뷰티 글로벌 페스티벌, K-푸드 한식요리 경연대회 등의 연계 행사를 동시에 병행으로 진행하는 복합형 국제행사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패러다임 전환 및 미래 금융선택을 주제로 온라인 화상강연을 진행한다.

아울러 국민연금기금의 도전과 미래에 대한 고민속에서 글로벌 팬데믹 시대에 금융이 기여 할 길을 찾고 전북 금융도시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니포럼 조직위는 코로나9 확산을 감안해 제1회 지니포럼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행사로 기획한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모범적인 행사 개최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데 그 뜻을 함께했다.

제1회 지니포럼은 지니포럼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라북도,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월드컬처 오픈포로아, (재)기후변화센터, (사)한국청년스타트업협회, (사)K-뷰티산업 협회, (재)국제한식문화재단, 한국생산성본부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또한 정책기획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전국시장·군수·구

청장협의회, 우리은행, 한국기업데이터, 국립무형유산원, 전주교육대학교가 후원으로 참여한다.

송하진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지니포럼의 성공적 개최는 전라북도가 글

로벌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포스

트 코로나 시대에 경제산업 전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주도할 기회가 될 것이다”며 “전북 금융생태계 조성과 지역혁신성장 및 삼생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지친 마을기업 ‘토닥토닥’

진영 행안부 장관, 전북 방문… 애로사항 청취·지원 약속

진 장관은 또 생산제품을 구매한 뒤 도내 복지시설에 기탁하는 나눔을 실천하기도 했다.

우법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행안부 마을기업 지원사업에 별별취 미을기업의 교육과 컨설팅, 판로지원 등을 확대하여 마을기업이 사업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날 현장행정은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마을기업 제품 판매와 체험행사 등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취약 계층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온 우수 마을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이날 진 장관이 찾은 푸드인완주마더쿠기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재료로 빵과 쿠키를 구워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마을기업이다.

‘마더쿠기’는 지난 2012년 행안부로부터 신규 마을기업 지정과 2013년 최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정부의 지원 속에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결혼이주여성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도는 현재 108개의 마을기업을 육성,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북도민의 특색 사업으로 고도화사업과 사무장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마을기업 하나하나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지역공동체를 살리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특히 마더쿠기가 지속가능성을 갖춘 자립형 일자리사업으로 가능성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격려했다.

/유호상 기자 · 원주=이중복기자

도, 보호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앞장

삼성전자-사랑의열매와 협약

예종석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신정찬 한국이동복지협회장, 5개 지역 사업수행 비영리단체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체결로 삼성전자는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한 센터 건립비용과 운영비로 3년간 50억원을 전북에 지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도 및 사업수행기관(굿네이버스전북 본부)과 협력해 사업 전반의 운영 관리를 지원한다.

/유호상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문화콘텐츠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tvU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